

기술위원회



김운형

(주)다산컨설턴트 해외사업부
부서장
(whkimb@gmail.com)

기술위원회는 2003년 사단법인 한국토질 및 기초기술 사회가 태동하면서 토질 및 기초기술사가 경험하고 습득한 고도의 기술력을 기술자문, 기술지도 및 기술세미나를 통하여 사회에 공헌하고자 조직된 본회의 공식 위원회이다.

주요회무는 2003년 규정 이후 세 차례의 개정(2005년, 2007년, 2011년)을 거쳐, 1) 기술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, 2) 전문위원 자격, 지원 및 활성화방안 등에 관한 사항, 3) 봄, 가을 기술행사계획, 기술자료 수집 및 정리, 4) 조사, 연구, 현장점검, 안전진단, 기술자문과 위탁업무 및 동 업무 유치 등에 관한 사항, 5) 과학·기술세미나, 워크샵, 기술지도, 견학 및 시찰 등에 관한 사항, 6) 특별 세미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, 7) 세미나 신개념 주제 발굴에 관한 사항, 8) 참가비 수령방안에 관한 사항, 9) 기타 기술에 관련한 사항이 있다. 이와 같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성된 제 16대 기술위원회

표 1. 제 16대 기술위원회 명단

구분	이름	소속	연락처
위원장	김운형	(주)다산컨설턴트	010-6207-2305
부위원장	박재원	대한컨설턴트	010-3438-7958
간사	문철화	삼보기술단	019-470-2237
간사	박근수	KSM기술	010-6257-3719
간사	정해성	(주)다산컨설턴트	010-7258-7791
간사	최재희	(주)이산 지반부	010-6252-2063
간사	최창호	한국건설기술연구원	010-7588-1344

명단은 표 1과 같다.

기술위원회의 주요업무 중 하나인 기술발표회는 2003년 가을 기술발표회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, 2009년부터는 봄, 가을 1년 2회의 기술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으나, 최근 들어 건설경기 침체의 여파로 가을 1회 기술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이다. 또한, 한국지반공학회, 한

국지반환경공학회,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등의 유관학회와 공동으로 기술발표회를 개최하거나 유관 학회의 후원을 통하여 유기적인 기술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. 한편, 기술발표회의 예산은 관련회원의 광고협찬 및 참가회원의 등록비로 운영하고 있다. 매년 발표되는 논문발표 사례를 살펴보면, 2004년 38편, 2005년 64편, 2006년 32편, 2007년 30편, 2008년 30편, 2009년 24편, 2010년 봄 기술발표회 6편, 가을 기술발표회 35편, 2011년 봄 기술발표회 4편, 가을 기술발표회 12편, 2012년 1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.

기술위원회는 본 회의 기술발전과 대외협력 및 기술봉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굴착, 연약지반, 사면, 터널, 시공, 준설패립/하천항만, 기초위원회 등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였다. 기술위원회는 회원들 중 기술력이 우수하고 전문성이 뛰어난 회원들을 우대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토질 및 기초분야의 기술력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회원들 간의 기술교류와 신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한다. 그러나, 정부의 SOC 사업규모 축소 정책 및 건설시장 축소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기술자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 결과인지 모르지만 각종 전문위원회 참여회원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매우

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.

향후 우리 젊은 기술자들의 어깨에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, 풍부하고 값싼 에너지, 깨끗한 대기, 안정적인 자원 공급,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같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건설기술의 경쟁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. 이를 위해서 우리 토질 및 기초기술자들은 타 전공분야와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여 경쟁력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이 될 것입니다. 다행스런 일은 최근 들어 신기술 신청 및 획득 건수가 확연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기술 정보 마당 분석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이후 터널 및 지반관련 신기술 지정 건수가 2008년 8건, 2009년 6건, 2010년 7건, 2011년 2건, 2012년 9건, 2013년 8월 말 현재 6건으로 2011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노력 및 활동에 우리 기술위원회가 밑거름이 되도록 준비할 것이며 점차 증가하는 신기술 개발에 비례하여 향후에는 기술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 및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. 회원 상호간에 긴밀한 정보 및 기술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가오는 11월 15일(금)에 개최될 가을기술발표회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짐합니다.